

# 1천년 시간 초월해 고려와 조선시대 '충의 대명사' 추앙



용산재에 세워져 있는 평산 신씨 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 동상

##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19> 곡성=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신승겸 장군

장절공 신승겸 장군은 고려 개국공신이다.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태생으로 어릴 적 이름은 능산(龍山), 시호는 장절공(壯節公)이다. 평산(平山) 신씨의 시조이다.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을 왕으로 세웠고, 927년 후백제 견훤과 맞선 공산전투 때 왕건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왕과 갑옷을 바꿔 입고 나가 순절했다. 공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절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다. 출생지인 곡성 일대에는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고, 신격화된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전라도 천년을 맞아 신승겸 장군과 관련된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해 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견훤과 전투 때 왕건 대신해서 전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에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현재 대구 팔공산)의 동수(洞守)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승겸과 김락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전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견훤이 승세를 타서 대목군(大木郡)을 함락하고, 들판에 쌓아놓은 노적가리를 다 불태워 버렸다."

'고려사' 권1 태조 10년(927년) 음력 9월조에 실린 신승겸 장군의 기사이다. 927년 9월, 후백제 견훤군이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를 점령하자 고려에 구원 요청을 한다. 이에 왕건이 5000명을 이끌고 출전했으나 대구 팔공산 인근에서 도리어 포위 당해 전멸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왕건과 용모가 비슷한 신승겸 장군이 왕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다. 머리가 없는 시신은 발등에 있는 북두칠성 모양의 공알같은 점을 찾아 수습할 수 있었다.

태조는 공산 전투현장과 가까운 현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절(지묘사)을 지어 공의

대구 공산전투때 왕건 대신해 옷 갈아입고 싸우다 순절

곡성에 장군단과 계마석 등 관련 유적 남아 있어

곡성군 대항강변에 13km '신승겸장군길' 조성

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 스토리텔링 활용 절실

덕양서원·용산재 등 국가 사적지 승격 바람직

명복을 빌었다. 또 고려 태사(太師)로서 태조 묘정에 배향됐다. 1120년 10월에 예종은 서경(평양) 순행때 팔관회에서 신승겸과 김락 장군을 추모하는 향가 '도이장가'(悼二將歌)를 지어 백성들에게 두 장군의 충절을 본받도록 했다. 고려 개국공신인 장절공의 충절은 역성혁명으로 왕조를 바꾼 조선시대에도 높이 평가됐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충의의 대명사로 국가와 지역유림, 문중에서 추앙해왔던 것이다. 공은 곡성 덕양서원과 용산재, 대구 표충사, 춘천 도포서원, 평산 태백산 성사, 동양서원 등에 배향되고 있다.

현재 장절공의 묘소는 곡성(장군단)과 춘천 두 곳에 전한다. 태안사 경내에 위치한 묘소는 장절공 전사 후 그가 타고 다니던 용마(龍馬)가 공의 잘린 두상을 물고 달려와 태안사 뒷산에 와서 사흘간 울다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장군단 아래를 파헤쳐보니 석함이 나왔다고 한다. 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에 위치한 묘역은 특이하게도 분분이 세계인 일인삼분묘(一人三墳墓)다. 이에 대해 학계는 이렇게 해석한다. 머리가 잘린 장절공의 시신을 수습한 왕건이 목공을 시켜 얼굴을 조각해 만든 다음 조복을 입혀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황금두상으로 알려지면서 도공을 피해 분분 3개를 조성했다고 한다. 출생지나 전사지와 멀리 떨어진 춘천에 묘역을 조성한 까닭에 대해서도 본래 이곳은 조선국사가 왕건의 묘자리

로 알려진 명당이었는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장군을 위해 묘자리를 양보한 것이라 전한다.

◇용산재와 덕양서원서 매년 향사 올려=용산재(龍山齋·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는 장절공이 탄생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 유적지이다. 1868년(고종 5년)에 후손 민병희가 부지를 마련했고, 1897년에 유허비(遺墟碑·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후세에 알리고 추모하기 위해 세우는 비)를 세웠다. 1929년에 후손들이 태를 묻었다는 곳에 석축으로 단을 만들어 용산단이라 이름 붙였다. 매년 음력 9월 중정(中丁)에 제사를 지낸다.

용산재에는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있다. 동상 뒤면에는 장절공이 순절하던 대구 공산전투를 묘사한 '충렬도'와 가리기를 활로 쏘 맞추는 '사안도'(射鴈圖)가 그려져 있다. 태조가 장군들과 평주 삼탄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공중에 가리기 3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태조가 "누가 저 가리기를 쏘겠는가?" 물었다. 그러자 장절공이 나서 태조가 명한대로 세 번째 가리기 왼쪽 날개를 맞춰 떨어뜨렸다. 이에 태조는 장절공에게 평산 신씨 성과 땅을 내렸다.

덕양서원(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은 1589년(선조 22년) 지방유림들이 뜻을 모아 장절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1695년(숙종 21년)에 덕양이라고 사액(賜額·임금이 서원 이름을 지어서 세긴 편액을 내리던 일)돼 장절

공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됐다가 1934년 지방유림에 의해 복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음력 2월 중정(中丁)과 8월 중정에 향사를 지낸다.

◇대항강변에 '신승겸장군길' 조성=곡성 목사동면 일대에는 장절공과 관련된 지명과 설화들이 많이 전해져 온다. 지명에는 용(龍)과 연관돼 있다. 대항강(보성강)에 여울과 소(沼), 바위가 많은데 용소(龍潭), 용소(龍窟), 용암(龍岩)으로 불린다. 탄생지인 구룡리 주변 마을이름도 용사리, 용정리이다.

곡성군은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충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981년 예전남도 기념물 56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덕양서원과 용산재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시켜 줄것을 지난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현재 심의중이다. 또한 압록유원지에서 목사동면 평리 삼거리까지 대항강변 13km에 3구간으로 된 도보길 '신승겸장군길(대항강둘레길)'을 조성했다. 장군이 젊은 시절 무예를 연마하고 용마를 타고 다닌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실제 장절공이 말을 매어두었다는 높이 3.65m 크기의 계마석(繫馬石)이 대항강 출렁다리 인근 죽곡면 삼태리 도로변에 서있다. 계마석을 통해 일정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 출신으로 추정된다. 문중에서도 장절공 재조명 학술대회를 지난 2015년 11월 개최하는 등 선양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산 신씨 시조유적지 덕양서원 신인현 도유사(전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는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고려에는 신승겸 장군이 있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래 들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덕양서원과 용산재도 국가사적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려 개국공신인 장절공 신승겸 장군 태생지인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에 위치한 용산재(龍山齋) 전경. 목사동면 일대에는 장절공과 연관된 계마석을 비롯해 용탄과 용소, 용암 등 다양한 지명과 설화가 전해져 온다.

<곡성군 제공>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